

三國遺事 所載 讚詩를 통해 본 一然의 文學에 관한 연구

韓睿媛*

<차례>

- I. 머리말
- II. 삼국유사와 讚詩
- III. 삼국유사 찬시의 내용과 사상
 - 1. 一然의 民族意識
 - 2. 一然의 人生觀
 - 3. 一然의 佛敎觀
- IV. 삼국유사 소재 찬시의 표현상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一然(1206 ~ 1289)은 승려로서 불교사상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의 編纂者로서 역사와 문학에 기여한 공도 지대하다. 이는 삼국유사가 문학 및 역사연구에서 점차 중요하게 평가되면서 그의 위치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결과이다.¹⁾

삼국유사는 편찬서이지만, 일연의 주관적 안목에 입각하여 취사선택된 일연의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글 자체를 일연의 문학으로 볼 수는 없다. 단지 44조목에 걸쳐있는 48首의 讚 형식의 운문적 표현만이 일연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현재 일연의 개인 문집이 전하고 있지 않은 실정하기에,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48首의 讚詩는 일연을 한 作家로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²⁾

소고에서는 이러한 讚詩의 문학적 중요성을 주목하여 일연의 문학과 사상을 연계지어 살펴 보려고 한다. 48수의 찬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연 문학의 특색과 사상의 기본적 입장 등이 부각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의 일연연구에 있어서 역사와 불교 방면의 연구 성과에 비하여 소박한 수준에 있었던 문학방면 연구가 좀 더 진작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려대학교

1)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36집, 진단학회, 1973; 소재영, 『삼국유사에 비친 일연의 설화의식』, 『승전어문학』 3집, 1974; 김태영,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 제5호 1974;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제20호, 한국사연구회, 1978;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 제38호, 1982; 박진태 외 4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1)』, 『한국민속학』 제29집, 민속학회, 1997.

2) 정기호, 『한국 고대시가 형식의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 1976; 김주한, 『삼국유사 소재 찬에 관하여』,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선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유풍연, 『삼국유사 소재 한시연구』, 『전주대학교교육부 논문집』 1집, 1983; 백신숙, 『일연의 찬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백운기, 『삼국유사의 일연찬시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6; 지준모, 『삼국유사의 詩歌考』, 『경산문학』 8집, 1992;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연구』, 태학사, 1995.

II. 삼국유사와 讚詩

讚의 사전적 풀이는 ①讚美 ②佐助 ③文體名 ④佛教中歌頌之辭라고 하고, 문체명의 설명에 ‘인물을 칭송하는 것을 주지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³⁾ 또 『중국어문학사전』에서는 문체명으로 설명하면서 ‘傳讚’과 ‘頌讚’으로 구별하고 있다.⁴⁾ ‘傳讚’은 史事와 인물을 평론하는 문장으로 운문과 산문의 두가지가 있고, ‘頌讚’은 歌頌의 작품으로 讚美에 사용되다가 후세에 와서 評述에 사용되었다. 즉 文史의 전편을 총결하는 형식으로 讚語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劉勰의 『文心調龍』에서는 ‘明’과 ‘助’로 풀이하고 있다. 明瞭性和 助援性を 강조한 것으로, 『문심조룡』 각 편의 말미에도 讚을 붙여 마무리하고 있다. 그 예로 「文體」條에 있는 讚을 살펴보자.

美德의 형용이 頌을 낳고, 빼어난 功이 讚이 된다. 文飾으로 다듬고 음악으로 묶으니 文理가 빛난다. 역사는 길이 쌓이며 칭찬은 아침 햇살처럼 빛난다. 末流에는 事物의 讚嘆으로 바뀌어 말의 遊戲로 되어 버렸다. 贊曰 容體底頌 勳業垂讚 鏤彩摘聲 文理有爛 年積逾遠 音徽如旦 降及品物 炫辭作翫.

본문에 서술한 내용 중 핵심이 되거나 강조할 것을 요약 반복함과 아울러 贊者의 서정적 감회를 간략하나마 덧붙여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한편 불교문학 쪽에서는 讚을 ‘讚歡稱揚’이라고 하여, 佛菩薩 및 祖師등의 공덕이나 위업을 찬미하는 章句로 사용하였다.⁵⁾ 이러한 불교 讚의 형태적 기원은 불교 十二分教中の ‘祇夜’⁶⁾나 ‘伽陀’⁷⁾에 있으나, 중국에 들어와 漢譯되면서 한시의 운문 형태와 접맥되어 ‘祇夜’나 ‘伽陀’와는 전혀 다른 佛教詩의 중간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⁸⁾

고려시대에는 이규보의 「布俗畫像讚」⁹⁾처럼 畫像을 보고 짓거나, 『三國史記』의 「論曰」처럼 본문에 서술한 내용을 반복 강조하거나 후미에 찬미와 포폄의 기능을 위하여 지어진 경우가 있었다. 특히 승려출신 일연의 삼국유사 소재 찬과 類가 비슷한 『海東高僧傳』의 讚은 산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동고승전』의 讚은 19명의 傳중에 讚이 붙여진 것은 10條이며, 불교적 내용을 좀더 美化함에 그치고 있을 뿐, 저자 覺訓의 주관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삼국유사의 讚은 일연 자신의 의견을 운문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점이 본고에서 주목하는 이유이다. 즉 삼국유사의 讚은 일연의 감동적 감회가 그의 언어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삼국유사의 체제 안에 일연의 주장이 담긴 형태는 讚 이외에도 撰者의 논리적 주장이 담긴 산문형태의 ‘議曰’과 ‘試論’이 있다.

일연은 자료를 모아 삼국유사를 편찬함에 있어 記事內容과 자신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 ‘嘗

3) 『辭源』(四), 商務印書館, 1976, 2927쪽.

4) 『中國語文學辭典』, 『辭海』言語文學分冊, p.251쪽.

5) 望月信享, 『望月佛教大辭典』, 세계성전간행협회, 1937, 1450쪽.

6) ‘應訟’ 또는 ‘重頌’이라고 함. 형태상 앞에 쓴 산문의 의미 내용을 운문으로 요약하거나 되풀이 하는 것으로 經文의 중간이나 끝에 달게 된다.

7) ‘偈頌’ 또는 ‘諷頌’이라고 함. 經文 전체가 하나의 운문의 집성으로 되어 있다.

8)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선사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117쪽.

9) “腹大而臑, 所蓄維何. 交岡而坐, 思耶想耶. 囊盈而重, 所貯何多. 方將囊括十方, 蠢蠢蚩蚩. 以所蓄所貯, 施之度之. 念方至此, 開目想思者乎.”(『東文選』 50권)

試論之'¹⁰⁾ 또는 '今試論之'¹¹⁾의 형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자기 의견의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거의 제시하여 고증하는 극히 실증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議曰'은 '시론'과 마찬가지로 산문의 형태이나, 서술방식은 다르다. 試論이 記事 내용에 대한 撰者 일연의 상이한 의견을 典據를 통해 보다 논증적으로 서술한 반면에, 議曰은 記事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논평과 撰者 일연의 감상을 서술해 記事를 총괄하는 방식이다.

일연은 試論과 議曰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기사의 논리적 終結을 추구하고 찬자 자신의 의견을 이론적으로 피력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듯하였다. 논리적 주장인 試論과 議曰의 산문 외에 일연은 다시 다수의 운문형식의 讚詩를 첨부하여 자신의 감동을 형상화 하였다. 讚 양식 본래의 역할인 讚美·讚頌의 성격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동적으로 총괄하고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삼국유사의 記事는 단순한 事實적 자료의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정서에 작용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현존하는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讚詩가 나타나는 조목은 전체 138조목 중 44조목에 48편의 讚이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撰者 일연의 안목으로 취사선택 된 기사에만 讚詩가 첨부되었음을 의미한다. 讚詩가 첨부된 條目을 삼국유사 전체적인 편제에서 살펴보면 「興法」이하의 후반부에 몰려있다. 특히 불교와 관련이 깊은 「塔像」편과 「義解」편이 집중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에서부터 제왕 고승대덕에 이르기 까지 여러 人物群에 대한 감동적인 면을 讚化하였다. 즉 불교와 관계 깊은 여러 人間事 중에서 일연이 큰 감동을 받은 것들이 讚으로 거듭 태어났던 것이다.

III. 삼국유사 찬시의 내용과 사상

삼국유사는 제왕의 연대기인 「王曆」, 국가사회에 관한 신이한 역사인 「紀異」, 그리고 일종의 불교미술 자료집인 「興法」·「塔像」, 일종의 고승전인 「義解」, 密敎史인 「神呪」, 신앙적 奇蹟記인 「感通」, 신앙과 사회문제인 「避隱」, 신앙과 가정문제인 「孝善」의 10部로 나뉘어져 있다. 篇目的 체제상으로 볼 때 중국 梁·唐·宋의 고승전이 十科로 내용을 나누어 서술한 것과 같은 체제이다.¹²⁾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불교사적인 고승전에 그치지 않고, 삼국시대의 다양한 민생의 삶을 전하여 주는 민속지이며 불교문화사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讚은 우선 篇裁에 따른 내용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으므로¹³⁾ 소고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讚詩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일연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一然의 민족의식

삼국의 사정을 전해주는 역사서로서 일연의 『삼국유사』가 편찬되기 90여 년 전에 이미

10) 『三國遺事』 권3, 「阿道基羅」條.

11) 앞의 책, 권4, 「眞表傳簡」條.

12) 민영규, 「一然의 禪佛敎」, 『진단학보』 제36호, 152쪽. 중국의 三高僧傳의 篇目은 다음과 같다. 『梁高僧傳』은 譯經, 義解, 神異, 習禪, 明律, 亡身, 誦經, 興福, 經師, 唱導로 되어 있고, 唐宋의 고승전은 譯經, 義解, 習禪, 明律, 護法, 感通, 遺身, 讀誦, 興福, 雜科, 聲德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백기운의 전개논문.

김부식에 의한 『삼국사기』가 편찬 되었다. 그럼에도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 한데는 그 나름의 강한 목적의식 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⁴⁾ 삼국유사의 저작동기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민족사의 자주성을 강조하여 민족혼을 되새기기 위하여”라고 한다.¹⁵⁾ 즉 이는 일연의 생존 시기가 우리 민족이 몽고민족의 침략을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려는 민족 자주주의식이 강하게 작용 하였던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연 이외에도 무인집권을 계기로 등장한 고려후기의 학자적 관료인 신진사인층이 보다 넓은 국가적 차원의 민족의식, 자기 역사 전통에 대한 긍정적 새로운 인식을 체득한 결과 「東明王篇」·「帝王韻紀」등 고대사를 재인식한 일대 서사시를 창출 하였다.¹⁶⁾ 아무튼 이러한 민족의식의 각성 속에서 삼국유사는 외세의 제압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소산으로 저작되었다. 그 예로 삼국유사는 민족의 시조 단군을 중국의 堯舜시대와 동시대로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민족이 중국 못지않은 유구한 역사를 형성하여 왔음을 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의식이 엿보이는 讚詩로는 「天賜玉帶」條가 있다.

구름너머 하늘이 주신 옥대를 두르니,
천자의 곤룡포와 우아하게 서로 어울리네.
우리 임금 이로부터 몸 더욱 무거워져서,
아마도 다음날엔 쇠로 섬들을 만들어야 겠네.
雲外天頒玉帶圍, 辟雍龍袞雅相宜,
吾君自此身彌重, 准擬明朝鐵作墀.¹⁷⁾

신라의 진평대왕이 하늘로부터 옥대를 받았는데, 이는 신라의 三寶 중의 하나가 되어 고구려의 침공으로부터 신라를 지켰다는 이야기에 관한 7言絶句의 讚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承句의 ‘辟雍龍袞’이라는 표현이다. ‘辟雍’은 周代에 천자가 세운 대학의 이름으로 보통 천자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또한 ‘龍袞’은 ‘袞龍御衣’로써 임금이 입던 正服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국의 천자에게만 사용하고, 우리나라 군주에게는 사용하지 못하였던 용어였다.

그런데 일연은 위의 讚詩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라의 왕을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반열에 올리거나 하는 일연의 의도가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삼국유사의 곳곳에 왕을 ‘天子’로 호칭한다던가, 왕의 죽음을 ‘崩’으로 묘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중국에 종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독립적임을 시사하고 있음이다.

신라의 三寶는 天賜玉帶 외에 황룡사 구층탑과 丈六尊像이 있다. 그러나 모두 몽고의 병화로 소실되었다고 삼국유사는 傳한다. 일연은 황룡사 구층탑이 소실된 참혹한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다음의 讚詩에서는 마치 눈앞에 구층탑이 있는 듯 묘사하고 있다.

14)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비사, 1980, 117쪽.

15) 이재호,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출판부, 1984; 이기백, 앞의 논문;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비사, 1980; 인권환, 「一然論」,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9.

16)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비사, 1980.

17) 『삼국유사』 권2, 「紀異」, 天賜玉帶.

귀신이 도와주는 듯 서울을 압도하고,
 날 듯한 용마루에 휘황한 금벽 빛 어른거리네.
 올라보니 어찌 九韓만이 굴복해 올 뿐이라,
 천지가 유달리 태평함을 이제야 알겠구나.
 鬼拱神扶壓帝京, 輝煌金碧動飛甍.
 登臨何啻九韓伏, 始覺乾坤特地平.¹⁸⁾

병화로 소실되었지만, 황룡사 구층탑의 위용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일연의 강한 역사의식이 느껴지는 讚詩이다. 구체적으로는 황룡사 구층탑의 위용으로 신라를 둘러싼 주변국가(九韓)가 굴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天地의 태평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연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신라에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 역사를 계승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記事가 양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불교적 사적 하나에도 佛國土 사상과 접맥하여 그 의의를 되새기고 있다. 이는 승려 신분이며 신라지역 출신으로서 갖는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민족의 수난시기를 거치면서 고대사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여 그 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우위성을 표방하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

2. 一然의 人生觀

『삼국유사』는 撰者의 신분이 승려이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는 이유로 覺訓의 『해동고승전』과 흔히 비교된다. 체제상으로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撰者의 記事 선택의 안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해동고승전에 선택된 내용은 주로 대승고덕에 관련된 것임에 비하여 일연의 삼국유사는 평범한 무명의 승려, 또는 서민이 중심에 있다.

서쪽 이웃 옛 절에 불등이 밝았는데,
 방아 찧기 다하고 절에 오니 밤은 二更이네.
 한마디 염불마다 한 부처 이뤄지리라 스스로 믿어,
 손바닥 뚫어 노끈 꿰고 그 몸도 잊었네.
 西隣古寺佛燈明, 春罷歸來夜二更.
 自許一聲成一佛, 掌穿繩子直忘形.¹⁹⁾

信心 깊은 노비출신 郁面에 관한 찬이다. 옥면은 신심이 깊어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염불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미워한 주인이 밤마다 방아 찧기를 시켜 절에 가는 것을 방해 하였다. 그러나 옥면은 노비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에 절에 가서 수행에 매진하여, 주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인보다 먼저 成佛하여 서방세계로 갔다는 記事에 첨부된 讚詩이다. 부처 앞에 만민이 평등하며, ‘萬物皆成佛’이란 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讚詩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비천한 노비일지언정 成佛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성취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

18) 『삼국유사』 권3, 「塔像」, 黃龍寺 九層塔.

19) 『삼국유사』 권5,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함을 피력한다. 더욱이 노동에 지친 육신의 흐트러짐을 막고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고정하고 精誠을 다하는 모습은 강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당시의 현실적 불평등한 관계의 부적절함이 일연의 찬시 속에서는 불교적 신앙의 힘으로 극복된다. 일연이 추구하였던 이상적 현실세계는 틀에 박힌 율령의 사회가 아니라, 틀에서 이탈될지언정 人情이 통하는 사회였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記事가 있다. 신라 哀莊王 때 황룡사의 승려 正秀가 겨울 밤 눈 쌓인 길을 걷다가 한 여자거지가 아이를 낳고 누워서 얼어 죽게 된 것을 보았다. 스님은 불쌍히 여겨 안아주기를 한참한 후, 그 여자가 깨어나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덮어주고 본인은 별 거벗은 채로 本寺로 돌아와 거적 풀로 몸을 덮고 밤을 새웠다. 그런데 한밤중에 왕궁에 하늘로부터 “황룡사의 중 正秀를 마땅히 임금의 스승으로 봉 하여라”하는 소리가 났다. 왕이 급히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고, 위의를 갖추어 그를 國師로 맞이하였다는 이야기다.²⁰⁾

여기서 거지 산모와 갓난아이를 구한 승려는 틀에 박힌 佛家の 계율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준다. 비천한 여인일지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일연은 讚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수양하는 승려의 입장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戒律일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승려 正秀의 행동을 통하여 계율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그것을 보살필 줄 아는 人情은 비록 속세를 떠난 승려일지라도 예외가 아님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음은 깊은 산중에 은거하는 두 수도승에게 관음보살이 길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방문하여 하룻밤 묶어 갈 것을 청하는 記事에 첨부된 讚詩이다. 북쪽 암자에는 佛家の 계율을 엄수하는 승려가 살고 있고, 남쪽 암자에는 나그네의 安危를 걱정하고 人情을 베푸는 승려가 살고 있다는 설정이다

푸른빛 떨어지는 바위 앞에 문 두드리는 소리,
어떤 사람이 해 저문 데 구름 빗장을 두드리는가.
南庵이 가까운데 그 곳으로 가시고,
푸른 이끼 밟으며 내 딸을 더럽히지 마시오.
滴翠嶺前剝啄聲, 何人日暮扣雲扃.
南庵且近宜尋去, 莫踏蒼苔污我庭.

골짜기에 해 저문데 어디로 가리,
남창 아래 자리 있으니 머물러 가시오.
밤 깊어 백팔염주 헤이고 또 헤이며,
다만 염불소리에 나그네의 잠 편치 못할까 저어하노라.
谷暗何歸已暝煙, 南窓有簾且流連.
夜闌百八深深轉, 只恐成喧惱客眠.²¹⁾

20) 第四十哀莊王代, 有沙門正秀, 寓止皇龍寺, 冬日雪深, 既暮, 自三郎寺還, 經由天嚴寺門外. 有一乞女產兒, 凍臥濱死, 師見而憫之, 就抱, 良久氣蘇, 乃脫衣以覆之, 裸走本寺, 苫草覆身過夜. 夜半有天唱於王庭曰: “皇龍寺沙門正秀, 宜封王師.” 急使人檢之, 具事升聞. 上備威儀, 迎入大內, 冊爲國師. (『삼국유사』 권5, 「感通」, 正秀師救水女).

21) 『삼국유사』 권3, 「塔像」, 南白月二聖, 努盼夫得과 恒怛朴朴.

위의 두 편의 讚詩 중 結句는 일연의 생각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부분이다. 前篇의 結句에 불법의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적 도리를 친구에게 미루는 융통성 없이 야박한 수도승에 대한 질타가 들어있다면, 後篇의 結句에는 계율의 엄수 이전에 인간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따뜻한 人情美를 찬미하고 있다.

위 讚詩가 첨부된 記事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남쪽 암자에 기숙한 길 잃은 여인은 곧 産氣가 있었다. 일반 사람도 당황할 상황에서 남쪽 암자의 수도승(夫得)은 차분히 물을 데우고 여인의 出産을 도와준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여인은 두 승려를 시험하러 온 관음보살인지라 곧 자신의 모습을 現身하고 夫得을 도와 成佛하게 해주고, 북쪽 암자의 수도승(朴朴)도 친구 夫得의 도움을 받아 成佛하였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연은 讚詩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생략한 채로 두 수도승의 인간 본연의 자세에 주목하고 있다. 수도하는 승려의 입장이지만, 수도하는 계율 이전에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함과 아울러 人情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이 삶의 올바른 방향이고 참다운 수도의 자세임을 역설하였다.

이 밖에도 인간의 합리적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神異한 자료가 삼국유사에는 수도 없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 또한 일연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 반영된 선택이었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우리 한문학사에서 유명한 ‘金現感虎’ 설화에 대한 讚詩이다.

山家 세 오라비의 악행에 견디지 못하여,
고운 입에 한마디 허락의 이름다움이어.
義理의 중함 몇 가지에 죽음도 가벼이 여겨,
숲 속에서 몸을 맡겨 落花처럼 저갔도다.
山家不耐三兄惡, 蘭吐那堪一諾芳.
義重數條輕萬死, 許身林下落花忙.²²⁾

일연의 讚詩는 설화 내용 중에서 오빠들의 악행에 대한 천벌을 대신 받는 처녀의 희생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다. 여기서 처녀가 죽음을 택한 이유는 夫婦의 義를 맺은 김현을 오빠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다. 또한 처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오빠들의 죄가 사면되고, 김현이 많은 상금과 함께 출세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는 유교의 ‘殺身成仁’의 덕목이다. 일연은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하여는 유교의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임을 꿰뚫고 있었다. 여기서 호랑이의 변신인 처녀와 인간 김현의 사랑은 類를 달리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처녀의 헌신적인 처세로 금수와 인간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類를 달리하는 이런 연인관계도 성립한다면, 신분의 上下에 의한 不和정도는 인간 본연의 義를 실현함으로써 해소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義는 다섯 종류가 있다. 父子의 義, 君臣의 義, 夫婦의 義, 長幼의 義, 朋友의 義가 그것이다. 여기서의 義를 좀더 세분하면 각각 親愛, 正義, 區別, 順序, 信賴의 五倫이 될 것이다.

일연은 이 다섯 가지의 義의 관계 중에서 후대의 조선시대에 이르면 상당히 굴절되었던 부부의 義理를 중요시하고 있다. 성리학적 禮敎秩序가 정착되면서 남녀관계는 부부의 義를 맺기 위하여 거쳐야 할 과정(禮)을 우선시 할 뿐, 두 사람의 감정의 화합 등은 무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연은 인간 본연의 성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었을까? 따라서 일연

22) 『삼국유사』 권5, 「感通」, 金現感虎.

은 禮敎는 고사하고 類를 달리하는 남녀관계의 通情도 수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人間性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人間性에 대한 긍정적 思考는 다음의 ‘調信’에 관한 詞에서 다음처럼 反轉한다.

잠시 쾌활한 일 마음에 맞아 한가롭더니,
남모르게 근심 속에서 젊은 얼굴 늙어졌네.
모름지기 黃梁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
괴로운 일생이 한바탕 꿈임을 깨달을 것을.
修身의 잘못됨은 먼저 誠意에 달린 것,
홀아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둑은 창고를 꿈꾸네.
어찌 가을날 하룻밤 꿈만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淸涼境에 이를거나.
快適須臾意已閑, 暗從愁裏老蒼顏.
不須更待黃梁熟, 方悟勞生一夢間.
治身臧否先誠意, 鰥夢蛾眉賊夢藏.
何似秋來淸夜夢, 時時合眼到淸涼.²³⁾

調信이 꿈꾸던 태수의 딸과의 인간적 삶은 바로 ‘黃梁一炊夢’이요, ‘一場春夢’에 지나지 않는 生老病死의 굴레였다. 그것이 생로병사의 굴레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욕망을 충족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일연은 홀아비가 미인을 꿈꾸고, 도둑이 보물 창고를 꿈꾸는 것은 人之常情으로 인정하지만, 그 또한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治身’은 ‘誠意’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이 구절은 『大學』의 8條目 중 ‘修身’ 과 ‘誠意’를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誠意’는 ‘正心’의 기반이 되고, ‘正心’은 ‘修身’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修身의 시작은 誠意에 달려 있다. 하지만 禪僧 一然이 추구하는 이상은 인간계의 治國平天下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계의 욕망을 초월한 淸涼境 즉 仙境을 추구하고 있다. 일연은 凡人의 평범한 인간적 삶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으로 수용하는 반면, 자신은 그 인간적 욕망의 질곡에서 벗어나 道家의 仙境과 같은 淸涼境을 추구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중시하는 禪僧이 되어 속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3. 一然의 佛敎觀

閔漬가 기록한 一然碑文에 의하면 ‘迦智山下普覺國尊’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그의 門戶가 迦智山派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비문에 의하면 그는 아홉 살에 海陽 無量寺에 기탁되었다가 雪嶽山 陳田寺에서 삭발하고 得道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陳田寺는 羅末 九山禪門의 하나인 迦智山派이며, 유명한 禪僧들이 法統을 전수하던 유서 깊은 禪刹이었다. 따라서 그는 禪僧으로서 修禪에 의한 불교적 깨달음의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승려의 모습이 실려 있다. 세상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無碍의 경지에 이른 惠宿惠空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佛法의 계율을 착실히 연구하고 수행하는 義湘형도 있다. 또한 出世 후 세속의 모든 일에서 멀어져간 은거의 승려가 있는가 하면, 元曉

23) 『삼국유사』 권3, 「塔像」, 調信.

처럼 대중 속에서 불법을 전파하는 대중 구제의 승려도 있다. 그 중 일연이 讚詩를 통하여 찬미하여 마지않았던 僧侶像은 無碍의 대중구제 승려들이었다.

풀밭에서 사냥질하고 여인의 침상에 누웠으며,
술집에서 미친 노래 우물 속에서 잠을 잤네.
隻履²⁴⁾와 浮空²⁵⁾은 어디로 갔는가,
한쌍의 보배로운 火中蓮²⁶⁾일세.
草原縱獵床頭臥, 酒肆狂歌井底眠.
隻履浮空何處去, 一雙珍重火中蓮.²⁶⁾

계율을 중시하는 佛家에서 위의 讚詩에 형상화된 행위들은 破戒에 버금가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일연은 이런 승려들을 한 쌍의 귀중한 火中蓮으로 칭송하고 있다.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연꽃이다. 세속의 어떤 일로도 그들의 숭고한 佛性은 더럽힐 수 없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처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라의 유명한 원효도 형상화 되었다.

角乘²⁷⁾을 지어 처음으로 三昧經의 중요한 뜻을 열어 보이고,
표주박을 舞弄하며 거리거리에 교화를 베풀었네.
달 밝은 요석궁에 봄잠이 깊더니,
문 닫힌 芬皇寺엔 돌아보는 그림자만 허전하네.
角乘初開三昧軸, 舞壺終掛萬街風.
月明瑤石春眠去, 門掩芬皇顧影空.²⁸⁾

경전에 해박한 學僧이었던 원효가 대중구원의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讚化하였다. 修禪을 통한 궁극의 목표를 개인구제, 개인의 해탈에 두지 않고, 대중구제에 걸었던 원효의 불교적 실천의 삶에 일연은 同感과 찬미를 보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실천이 불교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원효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金剛三昧經論』을 비롯한 경전 풀이에 주력하였다면, 일연의 불교 대중화 사업은 『삼국유사』의 편찬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일연은 원효의 불교적 행적에 깊은 동감과 공통성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불교관은 호국사상에 바탕을 둔 불국토사상적인 성격이 강하다.²⁹⁾ 불국토사상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던 당시 고려 후기의 분위기에서 佛者였던 일연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의식적으로 불교와 우리나라 역사와의 개연성을 강조하면서 성립한 것이 불국토사상이라면, 그 불국토 위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추구하였던

24) 隻履: 惠宿이 죽어 장사를 지낸 뒤에 파보니 깊은 한 짝만이 있었음을 말함.

25) 浮空: 惠空이 죽은 뒤에 공중에 떠서 사라진 것을 말함.

26) 『삼국유사』 권4, 「義解」, 二惠同塵

27) 角乘: 覺과 角이音が 같기 때문에 소의 두 角으로써 二覺을 표시한 것이고, 乘은 불법을 말함.

28) 『삼국유사』 권4, 「義解」, 元曉不羈.

29)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일연의 목표는 불교의 대중화를 통한 대중구원이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이 땅에 傳敎 된 이래, 불교는 점차 귀족층의 점유물이 되어 일반 서민대중과는 疏遠한 관계를 이루었다. 고려의 성립 이후에도 역시 불교는 대중구원의 중심에 있기 보다는 귀족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대중과 거리가 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불교의 귀족화는 敎宗의 優位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일연이 國師의 자리에 올랐던 고려 후기에는 敎宗이 약화되고 禪宗이 강화 되던 시기이다. 이것은 고려후기는 이런 大乘的 구원의 불교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며, 이러한 사정이 일연의 불교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일연의 불교관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취사선택된 자료의 편찬인 『삼국유사』이기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승대덕에 관한 記事보다는 평범한 서민,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던 하위 신분의 사람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 관한 記事가 그 대부분 자리를 차지한다. 부처의 구원도 비록 사회의 열등한 위치에서 고생하지만 진솔한 신앙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 이것도 일연의 의도적 선택이었음은 물론이다.

IV. 삼국유사 소재 찬시의 표현상 특징

1. 상징적 표현

『삼국유사』의 讚은 일연의 문학적 역량을 알아보기에 좋은 자료이다. 讚은 형식상 특색으로 주체의 압축 및 강조의 효과가 있다. 일연은 이러한 讚詩의 형식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였다. 특히 많은 찬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상징적 표현의 특징을 주목하여 보자.

눈 덮인 金橋는 열고 풀리지 않으니,
 계림 땅에 봄빛이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네.
 예쁘다 봄의 신은 才思도 많아,
 먼저 毛朗의 집 매화나무에 달라붙었네.
 雪擁金橋凍不開, 雞林春色未全廻.
 可憐青帝多才思, 先著毛郎宅裏梅.³⁰⁾

신라에 불교가 初傳되던 상황을 讚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봄 빛’, ‘봄의 신’등의 ‘봄’은 모두 불법을 상징하는 詩語들이다. 반면에 불법이 전하여지기 전의 상황을 ‘눈 덮인 金敎’로 표현하고 있다. 눈 내린 겨울이 불법을 전수받기 이전 어둠의 시기였다면, 매화 꽃 핀 봄은 불법의 은혜를 입은 광명의 시기를 비유한다.

『삼국유사』의 讚詩에서 봄은 계절의 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의 상징어로 사용한 경우도 많다.

수풀 헤치고 바다 건너 갔은 고난 무릅쓰니,
 至相寺는 문을 열어 진기한 보배로 맞이하네.

30) 『삼국유사』 권3, 「興法」, 阿道基羅.

雜貨를 채취하여 고국에 옮겨 심으니,
 終南山과 태백산이 함께 봄을 맞이했네.
 披榛跨海冒烟塵, 至相門開接瑞珍.
 采采雜花我(栽)故國, 終南太伯一般春.³¹⁾

신라에 화엄종을 처음 전한 義湘의 덕을 기리는 찬이다. 의상은 중국 至相寺의 知儼에게 화엄학을 전수받고 신라에 돌아와 傳敎하였다. 結句의 終南山과 太伯山이 함께 봄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의상의 노력으로 兩國 모두 화엄의 法雨에 젖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삼국유사의 讚詩에서 봄은 佛法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구름은 불법의 방해물이라는 이미지로 상징화되어 있다.

향불 피우고 부처님을 가리려 새 佛畫들을 볼 때,
 공양하는 齋僧들은 고작 옛 친구나 부르는구나.
 이로부터 비파암 위의 달은,
 때때로 구름에 가려 못에 비치기 더디었네.
 燃香擇佛看新繪, 辦供齋僧喚舊知.
 從此琵琶嶺上月, 時時雲掩到潭遲.³²⁾

신라 孝昭王이 望德寺의 낙성회를 열 때, 옛 친구들과 고승들을 불러모아 친히 공양을 하였다. 그 때 외양이 누추한 한 비구가 齋에 참석하고자 하니, 왕은 말석에 허락하고, 齋가 끝난 뒤 그 비구에게 “이 밖에 나가거든 國王이 親供하는 齋에 참석했노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비구는 왕에게 “폐하께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眞身 釋迦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옵소서”하고는 몸을 솟구쳐 허공에 올라 남쪽으로 갔다고 한다.

孝昭王은 허식에 급급하여 누추한 비구의 참석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이 효소왕의 좁은 소견이 불법의 전교에 얼마만큼 방해가 되었는지를 일연은 구름의 상징성을 통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讚詩에 나온 비파암 위의 달은 眞身釋迦의 비유이다.

이러한 공통적 상징의 표현을 통하여 일연의 문학적 역량을 엿볼 수 있거니와, 일연의 記事 내용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즉 상징적 표현은 記事의 주제 가운데 撰者의 강조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讚詩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2. 感覺的 표현

『삼국유사』의 讚詩가 상징적 표현에 의해 내용의 긴장감과 표현의 압축적 미감을 살렸다면, 다양하게 사용된 감각적 표현을 통하여 시의 회화적 미감을 드러냈다.

압록강에 봄 깊어 물풀은 곱고,

31) 『삼국유사』 권4, 「義解」, 義湘傳敎.

32) 『삼국유사』 권5, 「感通」, 眞身受供.

백사장 갈매기는 한가로이 조네.
 노 젓는 소리 깜짝 놀라 울면서 날고,
 어느 곳 고깃배지 손님 싣고 오누나.
 鴨淥春深渚草鮮, 白沙鷗鷺等閑眠.
 忽驚柔櫓一聲遠, 何處漁舟客到烟.³³⁾

順道가 처음 고구려에 불교를 傳敎하던 상황이다. 시의 표면적 표현만으로는 한가한 강변의 풍경을 읊은 서경시라고 할 수 있다. 順道 일행의 傳敎의 긴장감은 한가로이 즐던 갈매기가 놀라 날아가는 데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찬시의 감동을 증가시키는 미학 구조는 바로 감각적 표현에 있다. ‘鴨淥’은 고유명사이지만 글자 자체에 색채감을 가진 어휘로서 ‘白沙’와 대조를 이룬다. 푸른빛과 흰빛의 대조이다. 또한 물가의 파릇파릇한 물풀과 풀밭에서 한가로이 조는 하얀 물새도 그 색감을 선명히 하고 있다. 그 위에 이 시에는 청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우러져 있다. 즉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讚詩의 이미지를 생기 있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의 찬시는 앞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다시 보기로 하자.

푸른빛 떨어지는 바위 앞에 문 두드리는 소리,
 어떤 사람이 해 저문 데 구름 빗장을 두드리는가.
 南庵이 가까운데 그 곳으로 가시고,
 푸른 이끼 밟으며 내 뜰을 더럽히지 마시오.
 滴翠巖前剝啄聲, 何人日暮扣雲扃.
 南庵且近宜尋去, 莫踏蒼苔汚我庭.

여기서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되었다. 특히 ‘滴翠’, ‘雲扃’, ‘蒼苔’ 등의 詩語는 深山의 인적이 닿기 어려운 곳에 암자가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뜰에 낀 푸른 이끼는 밟는 사람이 없었음을 비유한다. 이처럼 감각적 표현은 일연의 정서와 감동을 더욱 절실하게 형상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일연의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부각시킴에도 좋은 모티브가 되고 있다.

V. 맺음말

일연은 『삼국유사』가 우리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자리매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 모두 일연의 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삼국유사』 가운데 일연 자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고에서 다루었던 讚詩뿐이다. 따라서 이 讚詩는 일연의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자료인 동시에, 그에 의해서 창조된 문학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소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삼국유사』 소재의 讚을 살펴보았다. 『삼국유사』에는 48首의

33) 『삼국유사』 권3, 「興法」, 順道肇麗.

讚詩가 있는데, 韻文詩의 형태로 記事내용을 압축 요약하면서 일연의 감동과 의견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졌다.

즉 일연의 사상과 감정적 감회가 다양한 표현의 美를 통해 감동적으로 표현된 漢詩 작품들이다.

讚詩를 통해 본 일연의 기본사상은 타민족의 압제를 당하면서 민족의식을 형성하였고, 이 민족의식은 불국토 사상을 확립시켰다. 일연은 부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불교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불법의 계율 이전에 어려운 처지의 인간에 대해 人情을 베풀 줄 아는 승려상을 진정한 불법의 실천자로 삼았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일연은 상징적 표현과 감각적 표현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讚詩의 문학적 가치를 고양시켰다. 이렇게 하여 일연의 讚詩는 불교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술성을 충분히 갖추므로 우리 한시 문학사의 커다란 성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참고 문헌

『三國遺事』

望月信享, 『望月佛教大辭典』, 세계성전간행협회, 1937.

『辭源』(四), 商務印書館, 1976.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선시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이권환, 『一然論』,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9.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연구』, 태학사, 1995.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36집, 진단학회, 1973.

소재영, 『삼국유사에 비친 일연의 설화의식』, 『승전어문학』 3집, 1974.

김태영,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 제5호 1974.

정기호, 『한국 고대시가 형식의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 1976.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제20호, 한국사연구회, 1978.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비사, 1980.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비사, 1980.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 제38호, 1982.

김주환, 『삼국유사 소재 찬에 관하여』,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유희연, 『삼국유사 소재 한시연구』, 『전주대학교교육부 논문집』 1집, 1983.

이재호,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출판부, 1984.

백신숙, 『일연의 찬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백운기, 『삼국유사의 일연찬시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6년.

지준모, 『삼국유사의 詩歌考』, 『경산문학』 8집, 1992.

박진태 외 4인, 『삼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1)』, 『한국민속학』 제29집, 민속학회, 1997.

<Abstract>

A Study of Ilyon's Literature on Song of Praise in Samguk Yusa

Han, Yae-won

In the later Period of Koryo(高麗) regime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Won(元) empire, Ilyon(一然, 1206 ~ 1289) appreciated the history of his own country subjectively, and consequently wrote the Samguk Yusa(三國遺事).

It is a sort of complication literature which contains diverse, precisely selected, affairs of politics, society, and it as Ilyon's own literature.

But we can appreciate the Ilyon's literature accurately only through the Song of Praise of the Samguk Yusa, Which is a sort of concise verse 7 chinese characters. The Song of praise shows the Ilyon's critics the importance of it.

Samguk Yusa contains 48 Song's of praise in all. In spite of it's diversity of inhalt. It is based on the reflection and affection of humanity. His the song of prise shows divers descriptive characterastics, and he make it more impressional by virtue of this descriptive beauty.

The Ilyon's literature is very important in the Buddhist literature, and liyon is, as a poet of koryo, an eminent author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chinese.

Key words : song of praise, national consciousness, view of Life, view of buddhist, symbolic words.

<논문투고일 : 2003.12.31 심사완료일 : 2004.1.31. 게재확정일 : 2004.2.14>